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357>

JCCT 2023-3-45

## 대학생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육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s of Self-Narrative Writing for University Students

김현주\*, 양영하\*\*

Hyun-ju Kim\*, Young-ha Yang\*\*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의 교재와 관련 논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여 소통하는 학습인 자기 서사 글쓰기 교과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거쳐 대학생이 되었을 때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연구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서사 글쓰기가 포함된 3개 대학의 교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기 성찰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 내에 포함된 부분적인 수업 진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에 집중하여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분석하였다. 자기 서사 글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자기 성찰과 이를 글쓰기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글쓰기 과정 동안 다양한 첨삭과 피드백 활동이 거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생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자기 서사 글쓰기의 보완점과 교육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자기 서사 글쓰기의 수업 모델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자기 서사, 교재, 성찰, 치유, 첨삭

**Abstract**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llege textbooks of self-narrative writing and examples of classroom practice are analyzed to find a way to educate it. The self-narrative writing subject with a learning of recognition,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with oneself, emphasizes the necessity when they become college students through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ree university textbooks which include a section on self-narrative writ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highlights the needs for a textbook covering self-narrative writing more extensively and comprehensively as what is offered by the existing textbooks is limited in facilitating students to fully develop the ability of self-reflection, which should be dealt as a long-term goal. Secondly, the current discussion on self-narrative writing and examples of real classroom practice were analyzed. It shows that a step-by-step approach is required to encourage the practice of deep self-reflection to be incorporated into writing. In addition, during the writing process, various correction and feedback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on a macro level and gradually while the communication and feedback should take place not only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but also among student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a teaching model of self-narrative writing by seeking complementary points and educational directions for self-narrative writing.

**Key words** : Self-narrative, Textbook, Reflection, Healing, Correction

\*정회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2월 9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1일

Received: February 9, 2023 / Revised: March 2, 2023  
Accepted: March 11, 2023  
\*\*Corresponding Author: yhyang@smu.ac.kr  
Dept. of Gyedang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angmyung Univ, Korea

## I. 서 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의 교재와 관련 논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대학국어, 작문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으로 변화하고, 글쓰기 교육이 다시 의사소통 교육의 차원으로 확장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1], 자기 서사 글쓰기는 이와 같은 쓰기 교육의 확장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과목이다. 또한, 한국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자기 서사 글쓰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제시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에서부터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거부감까지 여러 층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글쓰기가 지겹고 어려운 학습으로 인식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인에는 이해와 분석, 비판에 대한 동기와 의지의 부재가 있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는 의지나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사고와 감각에 대한 인식과 향유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향유는 스스로의 사고와 감각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그 부재는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2][3].

더욱 심각한 현실은 현행 고교 교육의 폐쇄성과 교양 교육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체성 미약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글쓰기는 물론,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습으로 연습한 경험을 대체로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글쓰기를 능동적으로 하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학생들의 감각과 사유가 폐쇄되고 도태되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4][5][6][7].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기 서사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글의 종류나 활용 대상 등과 관련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시, 설화 등 문학 작품을 활용한 자기 서사 쓰기에 대한 연구나[8][9][10], 자서전, 자아 성찰 에세이의 자기 글쓰기에 대한 연구[11][12][13], 영화나 매체를 활용한 자기 글쓰기 방안[14][15][16]에서 그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업 진행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17][18][19][20]와 이러한 자기 글쓰기의 효용으로서의 치유 효과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21][22][23]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각과 사유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교육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기 감각과 사유로부터 유리되고 있다. 자기 감각과 사유에 대한 욕망과 동기의 상실은 자아 정체성의 상실에 그 뿌리를 둔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 감각과 사유의 동기를 갖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머물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강하게 되는 대학국어와 같은 글쓰기 관련 수업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여 소통하는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 해보았자 소용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며 학습 효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심하게는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 서사 글쓰기 교과는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 서사 글쓰기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피기 위해 자기 서사 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3개 대학의 교재를 분석한다. 둘째, 자기 글쓰기 수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 성찰과 자기 치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한다. 셋째, 자기 서사 글쓰기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교재 분석

이 장에서는 대학의 글쓰기 수업과 관련하여 자기 서사에 대한 교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대학의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자기 서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숙고하는 ‘자아 성찰’로 규정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2][19]. 자아 성찰을 글쓰기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다루고 있는 대학으로는 경북대, 전남대, 상명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부산외국어대, 선문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자기 서사 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교재들은 대체로 4개에서 5개의 장으로 구성되는 큰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중 1개의 장을 성찰적 글쓰기의 과정으로 교재를 할애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 서사 글쓰기 교재로 경북대, 전남대, 상명대의 교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교재가 보여주는 공통적이면서도 가장 큰 특성은 이들 교재가 자기 서사 쓰기를 모두 ‘성찰적 글쓰기’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재의 이러한 구성은 먼저 교양 글쓰기 교육에서 성찰 학습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며, 동시에 치유 학습 글쓰기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자기 서사 쓰기와 거리가 있는 실용적 글쓰기인 자기 소개서 쓰기가 포함되기도 하여서, 각 교재의 해당 장이 자기 서사 글쓰기의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을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기 서사 글쓰기는 교재 전체에서 그 교육 내용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약이 자기 서사 쓰기에서 가장 주요한 목표인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어렵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각 대학의 교재 목록은 표 1이며,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재 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재  
 Table 1. Textbooks to be analyzed

대학	교재
경북대학교	대학 글쓰기(경북대 글쓰기교재편찬위원회, 2020. 경북대학교출판부.)
전남대학교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2019.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상명대학교	사고와 표현(최미숙, 박재현, 이승희, 최홍원, 전영욱, 2018. 사회평론아카데미.)

표 2. 자기 서사 글쓰기 교재의 목차  
 Table 2. Contents of self-narratives textbooks

대학	목차
경북대학교	제 3장 1. 나를 성찰하기 1.1 나를 이해하기 1.2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기 1.3 내가 만들어 가는 나 2. 나를 성찰하는 글쓰기 2.1 나에게 말 걸어 보기 2.2 대상과 소통하기 2.3 나의 미래상
전남대학교	제 3장

	나에게서 시작하는 글쓰기 무엇을 어떻게 쓸까? 자기성찰에세이와 자기소개서
상명대학교	제 3장 06 성찰적 글쓰기 1. 성찰적 글쓰기의 이해 가. 성찰적 글이란 나. 성찰적 글쓰기의 방법 2. 성찰적 글쓰기의 실제 가. 여행기 쓰기 나. 자기 성찰의 글쓰기 3. 정리

표 3. 자기 서사 글쓰기 교재의 내용  
 Table 3. Index of self-narratives textbooks

대학	글쓰기 실습의 종류	학습 활동
경북대	수업 내용에 대한 에세이 제시문 분석 내면 성찰하는 모방시 인생 성찰 에세이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 개요 사물과의 관계 성찰 가족 관계 성찰 미래의 모습/꿈/직업 인생 설계도 미래의 성공한 내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편지	발상 모으기 생각지도 그리기 작문 인생 그래프 관계 지도 그리기 관계 파악 표 장점 표 감정 표 자전적 기록표 개요
전남대	자기 성찰 자전적 글쓰기 자기소개서	작문/ 예시글에 대한 토론/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
상명대	여행기 독서 경험 수필 비교 분석 글쓰기	수사 연습 작문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상명대학교는 표 2, 표 3과 같이 성찰적 글쓰기라는 같은 제목 아래, 대체로 서로 다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보여준다. 우선, 성찰 학습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만 치유 학습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에세이와 자서전 형식의 자기 서사 쓰기를 포함하며, 각 해당 장의 내용에서 성찰 학습이 주가 되지만 치유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의 경우 인생에 대한 회고,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전남대의 경우 자전적 글쓰기에서, 상명대의 경우도 자전적 글쓰기에서 감각과 정서가 표현될 수 있는 치유 학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 교재의 차이점은 자기 서사 쓰기를 시도하도록 만드는 교육의 내용이 각 교재에서 성찰적 글쓰

기에 대해 내리는 정의에 따라 다름을 보이는 점이다.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략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기 서사 쓰기에 대한 가장 다양하고 충실한 시도가 이루어진 교재는 경북대에 해당하는데, 경북대는 자기 성찰을 ‘1)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의 과정, 2)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편견 없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고, 타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사색하고 기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상명대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상과 주변에 대해 사유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나 반성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글쓰기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는 경북대보다 전남대가 추상적이고, 전남대보다 상명대가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순으로, 각 대학에서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추구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가 보다 추상적임을 뜻한다. 즉 가장 구체적으로 성찰적 글쓰기를 정의한 경북대의 교재에서 그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하며,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글쓰기를 지도하도록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대와 상명대는 상대적으로 그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학생들의 글쓰기 형태 또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우선,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단어와 문장 단위에서 연습을 시작하거나, 모든 글을 쓰기 전에 경험과 기억에 대해 표나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 표나 그래프를 학생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글쓰기의 제한 사항들을 제시하는 교육 방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후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글쓰기로 제한하는 과제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 자기 생의 그래프, 슬프고 기쁘고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에 대한 기록 등의 내용은 자기 서사 쓰기의 좋은 내용이 될 것이다.

반면에 문제적인 지점으로 실용적 글쓰기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찰적 글쓰기의 정의가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에서는 미래에 성공한

나에 대한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어, 편견 없이 자기를 보아야 한다고 했으나 성공이라는 실용적 조건을 제시하고 말았다. 전남대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를 제시하여, 성찰과 거리가 먼 자기 선전에 대한 글쓰기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혼선을 보인다.

세 학교 모두 15주로 이루어지는 강의에서 대체로 5장으로 구성되는 교재를 소화해야 하므로, 성찰적 글쓰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만 배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기 서사 글쓰기로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학술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는 성찰적 글쓰기와 그 내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성찰적 글쓰기가 소략하게 구성된 교재의 구성은 성찰적 글쓰기의 교육 효과를 반감시킨다. 성찰적 글쓰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어나 짧은 문장, 혹은 자유 연상 등 여러 시도를 통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자기 서사 쓰기는 긴 글을 쓸 때 성찰과 치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재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교재 내용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성찰이 면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 내에 포함된 부분적인 수업 진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에 집중하여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온전한 자기 성찰에 집중하여 다양한 형식과 체계적인 과정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 III. 수업 분석

이 장에서는 자기 서사 글쓰기의 수업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서사 글쓰기는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성찰 학습은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정리, 비판, 반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치유 학습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자신의 감각과 정서에 대한 인식, 이해, 공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기 서사 쓰기의 학습은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할 때 학생들은 성찰과 치유를 자신들의 역량으로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으로서의 자기 서사 글

쓰기 수업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기 서사 글쓰기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성찰과 치유로서의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에 대한 논의

성찰 학습을 위한 교육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추가 되는 과정이므로,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불완전한 정체성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사회를 타자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교육이 된다. 자기 서사 쓰기를 이처럼 자아와 타자에 대한 관계로 인식한 대표적 연구는 임지연[11]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지연의 논의는 그간 이루어져 온 자기 서사 글쓰기에 대한 연구 중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집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콤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제시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까닭으로 자기 서사 글쓰기에서 수행되는 정체성 개념은 자기폐쇄적 범주를 넘어서 타자성의 의미화를 통해 완성된다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 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자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주체적인 세계 이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 맺음 등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사유의 기초를 마련”[4]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지연의 논의는 자기 서사 글쓰기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자아 정체성과 타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이론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이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 서사 쓰기를 통한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을 위해서 기존의 글쓰기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적 글쓰기나 실용적 글쓰기와는 다른 글쓰기의 방법과 그에 따른 교수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 교육에서는 글쓰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글쓰기는 생각이나 사상, 의견을 담아내며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반면에 자기 서사 쓰기의 글쓰기는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이므로, 감정과 직관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포함해야 한다.

기사, 편지 등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글에서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엄격한 독자의 검열을 거치는 글쓰기와 달리, 문체, 글씨체, 맞춤법, 문법, 글의 내용의 논리성 등 어떤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글쓰기까지도 포함한다. 곧,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지켜지는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에서 치유 학습이 연계될 수 있다.

치유 학습에 대한 연구에는 손혜숙·한승우[6]와 홍인숙[24]의 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손혜숙·한승우의 논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진행되었고, 자기 서사 쓰기에서 치유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업 형태를 마련하고자 한 의의를 지닌다. 홍인숙의 논의는 자기 서사 쓰기에서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교수자의 침묵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의의를 갖는다. 자기 서사 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학습 과정은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어떻게 침묵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더해지기에 치유로서의 침묵은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손혜숙·한승우의 논의는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표현해 보지 못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의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업 방안으로 자서전 쓰기를 제안하였으며, 그 수업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우선, 학생들에게 헤르만 헤세의 <나비>를 읽고 네 방법으로 나누어 자서전 쓰기를 시도하였다. 자서전 쓰기임에도, <나비>와 같이 유년 시절 자신의 고통과 치부를 드러내는 소설을 보여줌으로써 자서전 쓰기의 영웅화에서 벗어나는 수업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수업 방법은 1) <나비>를 읽은 후 바로 글을 쓰는 방법, 2) 칼 융의 페르소나를 통해 숨겨진 자아를 이해시킨 후 글을 쓰는 방법, 3) 2)의 과정 후 마인드맵을 그리도록 지도하고 글을 쓰는 방법, 4) 3)의 과정 후 내면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빈칸을 메우는 글쓰기를 여러 방향으로 진행한 후 글쓰기를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교수 방법상, 1)에서 4)로 갈수록 글을 쓰기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기억을 불러오기 위한 시도의 기회를 늘리고 다각화한 것이다. 그 결과 자기 서사 쓰기의 이론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학생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어, 문장, 짧은 글의 단계별 진행을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기 서사 쓰기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와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홍인숙의 연구는 자기 서사 쓰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교육 방법인 첨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의를 갖는다. 학술적 글쓰기나 실용적 글쓰기는 타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 형식이 주어지고, 그런 이유로 학생의 글에 대한 첨삭 또한 그 객관적 형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서사 쓰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객관적 형식으로 첨삭하기 어려운 형식의 글쓰기이다. 따라서 자기 서사 쓰기에 대한 첨삭과 지도에는 학술적 글쓰기나 실용적 글쓰기와는 다른 첨삭과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첨삭은 자기 서사 쓰기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접근된 부분이었는데, 홍인숙의 논의는 부족한 담론의 장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홍인숙에서 제시하는 첨삭 방안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주제와 구성 위주의 거시 첨삭, 둘째, 인정과 수용의 언어를 통한 첨삭, 셋째, 대면 첨삭의 병행을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거시 첨삭은 자기 서사 쓰기의 목적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자기 표현 동기를 격려하고 배가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다. 자기 서사 쓰기는 타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의 객관적인 완성도보다 학생이 자신의 내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발전시키는 역량의 습득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이때 거시적인 첨삭은 학생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인정과 수용의 언어를 통한 첨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기 서사 쓰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어 실제 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인숙에서는 인정과 수용의 태도를 학생이 글에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쓰고자 했던 생각의 실마리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첨삭 방법은 학습에서 다수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개인사를 가진 학생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인정과 수용의 언어를 통한 첨삭은 자기 서사 쓰기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첨삭으로, 자기 서사 쓰기 교과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로 첨삭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 홍인숙에서는 이러한 첨삭이 학습에서 실패의 경험이나 개인사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는데, 학습 실패 경험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각과 정서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글쓰기는 어려움을 동반하므로 이러한 범위 설정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면 첨삭의 병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기 서사 쓰기에서 필요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첨삭에 이어 대면 첨삭을 함으로써 학생이 교수자의 관심을 체감하고, 교수자의 인정과 수용의 언어를 다시 전달받음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글로만 전달되었을 때보다 학생이 교수자의 피드백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대면 첨삭은 학생들의 쓰기 동기와 자신감을 함양하는 주요한 교육 방법으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다양한 첨삭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박지윤[17]에서는 온라인 상황에서 자기 서사 글쓰기의 피드백 활동으로 협업 글쓰기 사례를 제시하였다. 즉, 에버노트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고 각자 자신의 성찰에 대해 발표와 토론 활동을 진행한 후 에버노트에서 서로의 글을 수정해 가는 협업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토론과 협업 글쓰기를 통해 성찰 구조 인식을 확장해 나가며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박혜순[20]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한 자기 치유 글쓰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첨삭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기 치유 쓰기의 첨삭 방안을 내용 및 구성, 형식, 공감 및 방향 제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주제의 초점화나 내용 재구성을 살피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문법적 오류나 단락 구조 등을 살핀다. 내용적 측면으로 글쓴이에 대한 공감 방향 제시와 글을 확장하여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첨삭 부분을 구분하였다. 구성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첨삭을 통해 거시적인 첨삭의 효과를 제시하고, 학생과의 공감 지점과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통에 초점을 두므로써 침삭을 통한 치유 효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기 치유 글쓰기에서 침삭은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일례로 동료 학습자의 글에 댓글 달기를 유도하여 학습자 간의 공감과 소통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19]. 침삭과 피드백의 가장 주요한 작용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생에게 대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사고와 감각 그리고 정서에 대한 인식을 진전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침삭과 피드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 서사 글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자기 성찰, 침삭을 통한 치유로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 곧, 자유로운 자기 성찰과 이를 글쓰기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글쓰기 과정 동안 꾸준히 진행되는 다양한 침삭과 피드백 활동이 거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또한 교수자와 학생 간의 활동뿐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수업 사례

앞서 살펴본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을 정리하면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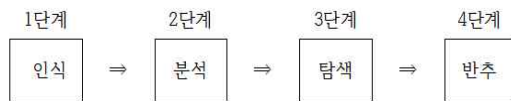


그림 1. 성찰 학습 과정  
 Figure 1. Self-reflection learning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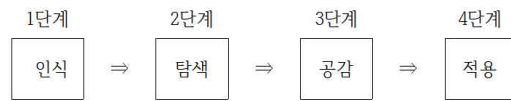


그림 2. 치유 학습 과정  
 Figure 2. Healing learning process

성찰 학습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신을 객관화하여 인식함을 의미하며, 자신이 직면한 현재적 상황을 인식하고(인식) 그 원인을 분석하여(분석),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탐색하는(탐색/반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

이 자신의 과거를 인식, 분석, 탐색,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주체의 형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치유 학습의 과정 또한 4단계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감각이나 정서를 인식하고(인식),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더 깊이 탐구하며(탐색), 그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과 정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관점의 변화와 이해를 얻게 됨으로써(공감),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자아 인식과 문제해결, 그리고 성장에 이르게 된다(적용).

이러한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이 적용된 예시를 S대학의 글쓰기 수업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 자기 서사 쓰기는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첫 주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특히 내면 깊숙이 침잠해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각각의 주제를 떠올리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 부모 형제가 생각하는 나,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에 집중하도록 하여 일차원적인 자기 이해의 틀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설문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예시  
 Table 4. example of survey

‘나’에 대한 가족 인터뷰	
가정에서 조화되는 것을 좋아한다.	자립심이 부족하다.
용돈 관리를 잘한다.	형제, 자매와 다정하게 잘 지낸다.
가사를 자발적으로 돕는다.	가족이 본 나의 단점은?
가족이 본 나의 좋은 점은?	
‘나’에 대한 친구 인터뷰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움 줄 안다.
선생님이나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는 편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친구가 본 나의 단점은?
친구가 본 나의 좋은 점은?	

2주 차에서는 전주에 내준 과제를 모두 한꺼번에 펼쳐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현재 내가 있

기까지의 역사를 차분히 반추해 보게 한다. 이러한 작업은 조별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의 충위를 다양화해 나간다. 이후 토론을 통해 정리된 생각에서 자신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억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하고 자기 서사 글쓰기를 완성한다.

3주 차에는 완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교수자는 침묵식의 피드백보다 거시적으로 글의 구성, 문단의 짜임새, 내용의 일관성 및 진실성 등에 주목한다. 자기 서사 글쓰기의 특성상 내용이 자신의 치부나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전체 학생들에게는 익명으로 글을 소개하고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한다. 피드백 진행 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을 제출하도록 한다. 실제 수업에서 자기 서사 쓰기에 참여했던 학생의 글 예시는 표 5와 같다.

표 5. 자기 서사 글쓰기 예시  
Table 5. example of writing a self-narrative

학생 글 예시
<p>12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속된 말로 '애비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약삭같이 간절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나의 페르소나를 더 위선적인 가면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남들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내면의 열등이라는 동굴을 더 파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고등학교 시절 나를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나에게 대한 친구 인터뷰에서 나를 '지나친 배려에 스스로 지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해주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부였던 나는, 선배에게는 예뻐 받고 싶고, 후배에게는 의지가 되는 선배이고 싶었다. 나는 그 중간에서 위선적인 페르소나와 함께였다. 이후 나의 위선적인 가면은 선생님들 앞에선 항상 웃고 씩씩한 방송부 부장으로 기억하길, 선배들에게는 순종적이고 일 잘하는 후배로 기억되길, 후배들에게는 멋있는 선배로 기억되길 바라며 학교에서 여러 가면을 만들어갔다. [중략] 위선적인 나의 가면은 위선을 버리고 여러 자아만 남겨두어 내 자아가 언제든 급방 회복할 수 있는 자존감을 남겨 주었다. 아직도 그 때 받은 상처들과 허황했던 가면들은 내면을 성장시키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으며, 나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만만하고, 위선적이고, 미운만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겸손할 수 있는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나 스스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한다.</p>

표 5와 같이 자기 서사 글쓰기를 통해 성찰 학습의 인식 단계부터 치유 학습의 적용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S대의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 사례는 비교적 단기인 3주에 걸쳐 진행된 것이어서 앞서 제시한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의 단계가 모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찰 학습과 치유 학습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여러 단

계가 맞물려 적용되기도 하여, 앞서 제시한 단계별 진행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자기 서사 글쓰기 수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이러한 실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 서사 글쓰기의 보완점과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 IV. 결론

자기 서사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아와 타자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재와 논의, 수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자기 서사 글쓰기가 포함된 교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과 내용과 방안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자기 성찰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 내에 포함된 부분적인 수업 진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에 집중하여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기 서사 글쓰기의 수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수업 사례를 통해 자기 서사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분석하였다. 자기 서사 글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자기 성찰과 이를 글쓰기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글쓰기 과정 동안 다양한 침묵과 피드백 활동이 거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생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자아 정체성의 함양은 외부 세계를 포함하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에의 동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자기 서사 쓰기 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기가 지속적인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서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계를 통해, 자기 서사 쓰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치유 학습의 경우, 자기 서사 쓰기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독서 수업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학 입문서들을 접함으로써 더욱 학술적인 탐구를 지속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상담 수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독



서 및 상담 수업과 연계되는 자기 서사 쓰기는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근본적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형식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의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은 자기 서사 글쓰기 교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자기 서사 글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기 서사 글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연구가 자기 서사 글쓰기의 수업 모델을 정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Lim Seon-ae,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niversity Writing Center 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 21, pp.133-156, 2017. DOI: 10.37736/kjlr.2017.09.2.1.133
- [2] Choi Sun-nyu, "Education of Writing Autobiography for Establishing Self Identity - Focusing on Writing Future Autobiograph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Issue 5, pp.97-130, 2014.
- [3] Park Ho-gwan, "Educational content of Self-reflective writing and Analysis of Teaching and Learning Cases", *Urimalgue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3(0), pp.69-101, 2014. DOI: 10.18628/urimal.63.201412.69
- [4] Lee Yang-sook,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using self-narrative",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15, no.1, pp.169-189, 2011.
- [5] Jeon Han-sung, "The Critical Study about Appropriateness of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Literature Curriculum",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50, no.50, pp.259-278, 2011. DOI: 10.23016/klj.2011.50.50.259
- [6] Son Hye-suk, Han Seung-woo, "University in writing 'self-narrative writing' A stud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Lang. & Lit.*, vol.50, pp.419-450, 2012.
- [7] Kim Jung-eun, "Process and Significance of Autobiographical Writing Using Narrative Questions and Folktale Responses: Focusing on University Liberal Writing Class Using Magic Mirror of Story-in-depth of Self", *Journal of Literary Therapy*, vol.62, pp.9-62. 2022. DOI: 10.20907/kslt.2022.62.9
- [8] Yi Myoung-hee, "Creative Reading of Poem through Internal Confession and Self Realization", *Journal of Literary Therapy*, vol.21, pp.121-157, 2011.
- [9] Seong Eun-hye, "The utility of self's narrative-writing through the literary reading and Analysis of Teaching-Learning case", *The Institute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34, pp.53-84, 2015.
- [10] Kim Mi-ryeong, "Self-narratives Using Literary Writing", *Culture and Convergence*, vol.44, no.7, pp.1-13, 2022. DOI: <https://doi.org/10.33645/cnc.2022.7.44.7.1>
- [11] Im Ji-yeon, "A Study on the Method for Integrated Effects of Autobiographic Self-narrative Writing - Focusing on Cases of Long-text Self-narrative Writing", *Literary Criticism*, no.48, pp.313-345, 2013.
- [12] Kim Hyeon-jeong, "The Implications of Writing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Writing in the Self-Reflection Essa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11, no.3, pp.161-191, 2020. DOI: 10.37736/KJLR.2020.06.11.3.05
- [13] Jeon Min-gyu, Jo Hyeon-jun, "A Case Study of Self-Writing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Introducing myself to me' a writing educational plans through discourse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59, pp.219-243, 2022. DOI: 10.33638/JHS.59.9
- [14] Na Eun-mi, "Exploration on Self - reflective Writing Using a Movie - Using movie, <The Hunt>, with undergraduates as subjects -", *Research on Writing*, vol., no.31, pp.63-92, 2016..
- [15] Lee Yun-seung, "A study on self-reflective writing education using film -based on the movie [Billy Elliot]", *The Journal of Literary Theory*, no.71, pp.363-390, 2017. DOI: 10.22273/SMLT.71.13
- [16] Park So-young, Park Sun-young, "Study of the Practice and Usefulness of Writing Class on Self-portrait using Media", *Urimalgue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77, pp.83-132, 2018. DOI: 10.18628/urimal.77.201806.83
- [17] Park Ji-yoo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flection Structure and Teaching Method in Reflection Writing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37, no.2, pp.161-179, 2021. DOI: 10.18627/jslg.37.2.202108.161
- [18] Lee Ji-hyun, "A Study on Non-Face-to-Face General English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ading Movie Scripts Aloud", *The*

-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7, No.4, pp.267-272, 2021.
- [19] Chu Sun-jin, "A Study of Non-real-time Non-face-to-face Lectures on Self-reflection Writing - Focusing on Kyunghee University's "Reflection and Expression" lecture", *The Journal of Literary Creative Writing*, vol.20, no.3, pp.59-81, 2021. DOI: 10.47057/jklcw.2021.53.03
- [20] Park Hea-soon, "Direction of College Writing Education in Contact-free Times and Reality of Class -Focusing on Writing at S University based on Self-Healing Writ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Culture(JKC)*, vol.58, pp.193-240, 2022.
- [21] Kim Young-hee, "The Study on Writing Education Program Applying the Concept 'Inner Child' and Focusing on 'Self-Narrative' and 'Self-Mourning'", *Journal of Literary Therapy*, vol.36, pp.197-251, 2015.
- [22] Jung Sung-mi,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introspective writing", *The Journal of Lang. & Lit.*, vol.66, pp.53-277, 2016. DOI: 10.15565/jll.2016.6.66.253
- [23] Yi Myoung-hee, "The Impact of Self-narrative writing and Bibliotherapy by Self-selected Read Self-selected book assignment -based on the Case Study of Liberal Arts Class in Kon Kuk University", *Journal of bibliotherapy*, vol.13, no.2, pp.115-133, 2021.
- [24] Hong In-sook, "A Study on Effective Correction Instruction Methods of Self-Reflective Writing in College Writing -Focusing on writing cases of students in Sunmoon University", *The Journal of Lang. & Lit.*, vol.73, pp.409-438, 2018. DOI: 10.15565/jll.2018.03.73.407